

The Impact

고용안정성, 탄광 속 카나리아 될 수 있다

- Part I ESG Issue Comments
- Part II 글로벌 ESG Issues & Insights
- Part III ESG 투자 지표 및 지속가능 자산 동향



이베스트투자증권 **김윤정**입니다.

이베스트 리서치는 [The Impact] 라는 시리즈로 정기 자료를 발간하여 ESG와 관련된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모색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art I에서는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ESG 현안**에 대해 짚고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여 향후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ESG는 이슈에 따라 **단기적인 시장 영향과 중장기적인 투자 아이디어** 모두 제시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다양한 시각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Part II는 최근 업데이트 된 **글로벌 ESG 이슈와 인사이트**를 주제별로 선정하여 깊이 있게 소개하고, 몇몇 주제들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지난 한 달 간 언론보도나 글로벌 리서치 기관 등에서 다룬 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Part III**는 투자에 참고할 만한 **ESG 지표**와,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투자 규모와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지속 가능 자산군별 동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액티브/ESG/비상장
Analyst **김윤정**
02 3779 8753
yunjeong.kim@ebestsec.co.kr



eBest ESG Series

고용 안정성, 탄광 속 카나리아 될 수 있다

Contents

Part I	ESG Issue Comments	4
Part II	글로벌 ESG Issues & Insights	10
Part III	ESG 투자 지표 및 지속가능 자산 동향	20

Part I

ESG

Issue

Com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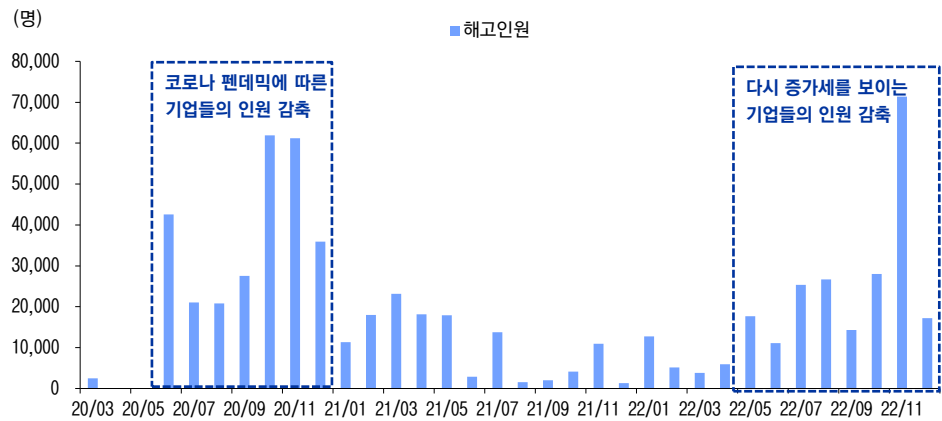
인력 구조조정, 기업 생존과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모두 고려

미국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력 구조조정

지난해부터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력 감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테크 스타트업부터 빅테크에 이르기까지 채용을 중단 내지 감원이 진행되고 있음을 발표하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빅테크 기업들에 인력 구조조정 및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으며, 경영진의 교체나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감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Challengers, Gray & Christmas 집계치에 의하면, 지난 1월간 미국 기업의 해고 인원은 10만명을 넘어서며 2020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연간 해고 인원이 36.4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셈인데, 해고 사유는 대부분 시장 및 경제 환경을 꼽고 있다. 업종별로는 기술, 자동차 순으로 해고가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이 증가했다.

그림1 2020년 이후 기업 인원 감축 추이(실적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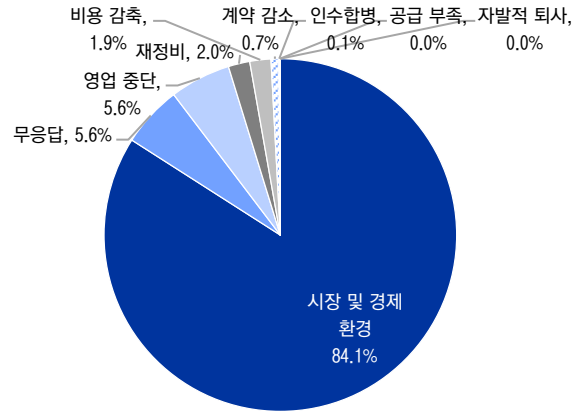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1월 해고 규모는 2020년 9월 이후 최대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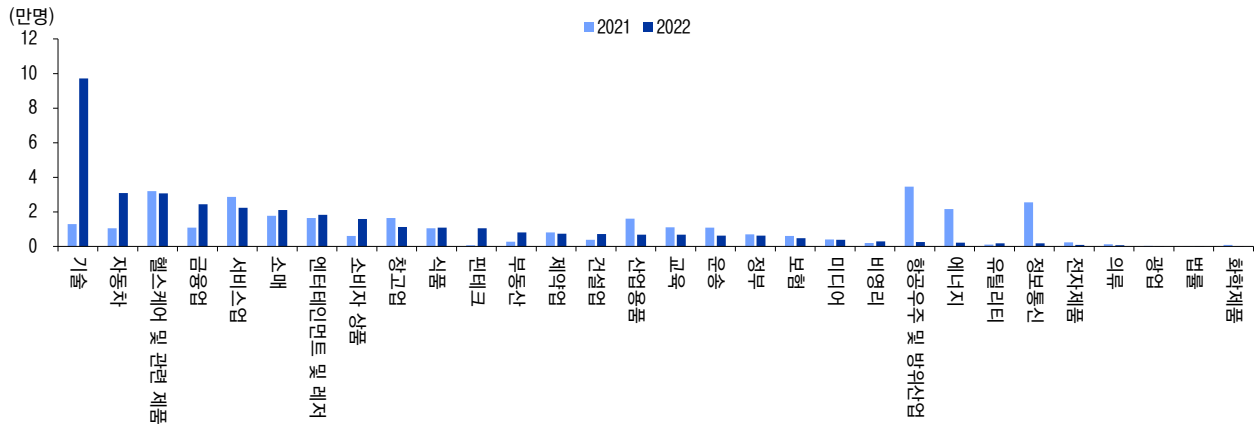
자료: Challenger, Gray & Christmas,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시장 및 경제 환경에 의한 해고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



자료: Challenger, Gray & Christmas,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업종별 해고 추이: 연간 해고인원 13% 증가한 가운데, 기술 업종 내 해고건수 1.3만 건 → 9.7만 건으로 (649%) 증가



자료: Challenger, Gray & Christmas,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1 2022년 이후 주요 미국 테크기업들의 감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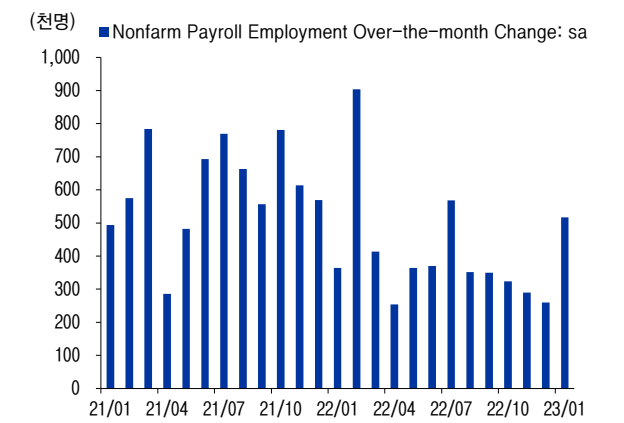
기업명	발표일	산업 영역	감원규모(명)	비고
아마존	2023.01.05	이커머스, SaaS	18,000	작년 11월 1만명 감원(3%) 발표 후 지난 1월 8천명 추가 감원(2%)
알파벳(구글)	2023.01.20	인터넷서비스	12,000	-
메타(페이스북)	2022.11.09	소셜미디어	11,000	인력 13% 감원
마이크로소프트	2023.01.18	기업 SW	10,000+@	작년 7월 감원(규모 비공개) 후 지난 1월 1만명 추가 감원
세일즈포스	2023.01.04	기업 솔루션	9,090	작년 11월 1,090명 감원 + 1월 8천명 추가 감원
시스코	2022.11.16	기업 SW, SaaS	4,100	인력 5% 감원
펠로톤	2022.10.06	홈피트니스	4,084	-
IBM	2023.01.25	IT HW / SW	3,900	인력 2% 감원
트위터	2023.01.05	소셜미디어	3,740	작년 11월 약 3,700명 감원 후 지난 1월 40명 추가 감원
SAP	2023.01.26	기업 SW, SaaS	3,000	인력 3% 감원
웨이페어	2023.01.20	이커머스, 홈오피스	2,620	작년 8월 870명 감원 후 지난 1월 1,750명(10%) 추가 감원
Gopuff(비상장)	2022.10.21	이커머스, 배달	2,300	4차례에 걸친 인력 구조조정 진행(2022년 1월, 3월, 7월, 10월)
코인베이스	2023.01.10	암호화폐	2,110	작년 6월 1,100여명, 11월 60명, 지난 1월 950명 감원(인력 20%)
페이팔	2023.01.31	핀테크	2,083	작년 5월 83명 감원 후 지난 1월 2천명(7%) 추가 감원
Redfin	2022.11.09	프롭테크	1,332	작년 6월 470명(6%) 감원 후 11월 862명(13%) 추가 감원
Vacasa	2023.01.24	부동산, 프롭테크	1,300	인력 17% 감원
스냅	2022.08.31	소셜미디어	1,280	인력 20% 감원
도어대시	2022.11.30	이커머스, 배달	1,250	인력 6% 감원
캐피탈원	2023.01.19	은행 및 금융업	1,100	-
Kraken(비상장)	2022.11.30	암호화폐	1,100	인력 30% 감원
Noom(비상장)	2022.10.11	디지털헬스케어	1,095	작년 4월 495명 감원 후 10월 500명 추가 감원
Stripe(비상장)	2022.11.03	핀테크	1,050	-
로빈후드	2022.08.02	핀테크	1,013	작년 4월 300명(9%) 감원, 8월 713명(23%) 추가 감원
그루폰	2023.01.30	이커머스	1,000	작년 8월 500명 감원 후 지난 1월 500명 추가 감원
Shopify	2022.07.26	이커머스	1,000	인력 10% 감원
Invitae	2022.07.18	바이오테크	1,000	-

자료: Crunchbase,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용지표는 시장 우려와 달리 견고한 모습이다. 지난주 발표된 1월 고용보고서는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의 고용 증가(비농업 일자리 51.7만 개 증가, 시장 예상은 18.5만개 증가)와 코로나 이전 레벨로 낮아진 실업률(3.4%, 시장 예상은 3.6%)을 보여주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최근의 기업 구조조정은 특정 업종에 한해 크게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모양이다. 대규모 감원을 진행하는 기업들 가운데 굴지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후광효과가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타이트한 노동 시장의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림5 1월 비농업 일자리 51.7만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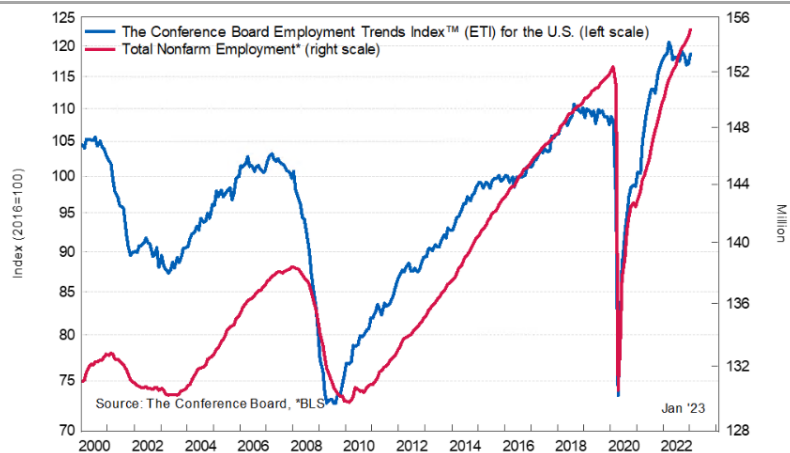
자료: CEI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1월 실업률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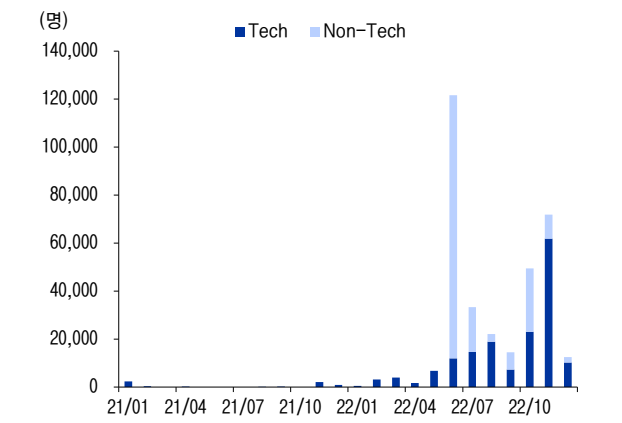
자료: CEI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컨퍼런스보드 고용추세지수(E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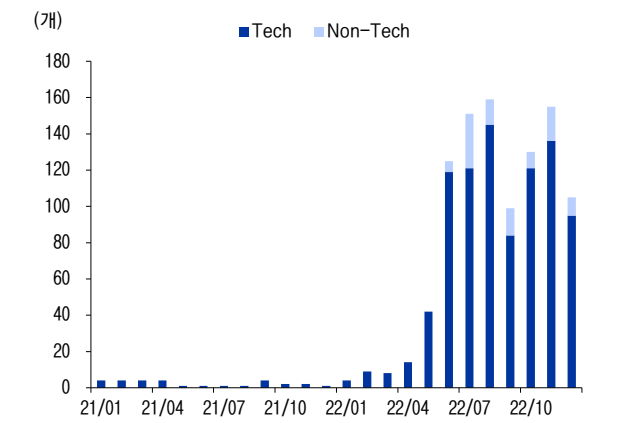
자료: CB,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미국 기업들의 감축 인원 수



자료: Layoffstracker,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인원 감축에 나선 미국 기업 수



자료: Layoffstracker,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고용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조정에 돌입한 기업들은 대체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한 수요 증가 또는 전례 없던 유동성 팽창에 직면하면서 직원 규모나 임금을 지나치게 확대했던 기업에 속한다. 결국 과도하게 늘렸던 인건비를 다시 정상화하는 과정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기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로도 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 8번(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기업이 직면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1차적 대응으로 직원 해고 및 임금 삭감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기업은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재정적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 비용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해고나 임금 삭감에만 의존하지 않는 유연한 근무 체계 도입이나 비용 절감 조치와 같이 직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업들에 권장하고 있다.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 GRI는 보고기간 동안 자발적인 경우(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이직/퇴사)와 비자발적인 경우(고용계약 종료, 구조조정, 합병 및 해고에 의한 면직, 정년퇴직, 사망 등 근로자 의사와 무관한 이직/퇴사)를 포괄한 이직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글로벌 이니셔티브 기준을 국내 여건에 맞게 구성한 K-ESG 가이드라인도 고용 안정성 지표로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S-2-1), 자발적 이직률(S-2-3) 등의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표2 K-ESG 가이드라인 내 고용 안정성 평가 지표

분류번호	항목명	성과 측정	데이터 산식
S-2-1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조직이 직전 1개년 신규채용지수 및 고용 규모가 산업 평균을 초과하는지, 지난 5년간 부가가치 증감을 대비 신규 채용률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	$\text{신규채용지수} = \frac{\text{당해 신규채용인원} / \text{전년 신규채용인원}}{\text{당해 부가가치} / \text{전년 부가가치}}$ $\text{고용 규모} = \text{당해 총 인원} - \text{전년 총 인원}$
S-2-3	자발적 이직률	국내외 모든 직원에 대하여 자발적 이직률 증감 추이를 분석하며, 동종산업 평균과 비교해 자발적 이직률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	$\text{자발적 퇴사(이직)율} = \frac{\text{당해 총 자발적 퇴사자(이직자) 수}}{\text{당해말 총 직원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합동,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발적/비자발적 이직률 지표를 포함한 ESG 평가에서, 비교적 고용, 해고 및 이직이 자유로운 분위기의 미국 기업 대비 국내 기업들의 직원 이직률 지표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인력점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고 있다. 인력점수 구성 항목에는 해고 발표치 등도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는 기업들로부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표기에서 제외하였다.

업종별로 미국의 경우 경기소비재 업종의 직원 이직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나, 비자발적 이직률은 금융업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틸리티 업종에서 유일하게 비자발적 이직률이 자발적 이직률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며, 소재 업종의 비자발적 이직률이 미국 소재기업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2년 발표치에서 미국 기업들의 인력 구조조정 내용이 반영되면 그 비중이 월등히 높은 기술 업종에서의 사회부문(S) 점수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SG 평가항목을 비재무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고용 안정성 지표가 부진하면 인력 급감에 의한 기업 생산성의 변동성 확대 위험이 높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고용 지표가 거시경제 단에서 경기연착륙을 가늠할 지표로서 주목되는 만큼, 기업 ESG와 미래 재무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기관과 ESG 투자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표3 미국 기업 업종별 평균 ESG 사회(S) 부문 점수 및 고용 안정성 지표 (2021년 기준)

업종	대상기업수	사회(S)부문 점수	등급	인력점수	등급	직원 이직률(%)	자발적 이직률(%)	비자발적 이직률(%)
에너지	582	41.4	C	40.5	C	13.0	7.9	5.3
소재	451	49.6	C+	46.4	C+	15.1	11.1	4.6
산업재	1,126	47.0	C+	44.2	C+	22.5	17.8	5.9
경기소비재	980	45.8	C+	42.1	C+	25.9	22.1	7.9
필수소비재	443	50.2	B-	45.8	C+	23.7	20.6	7.8
금융업	2,424	41.6	C	41.5	C	17.5	14.2	8.7
헬스케어	1,548	44.1	C+	45.9	C+	14.8	12.9	3.7
기술	1,433	49.6	C+	48.1	C+	13.2	10.8	2.8
유틸리티	130	50.6	B+	44.7	C+	9.0	5.9	2.4
부동산	377	47.5	C+	41.3	C	16.9	11.3	5.4
교육 서비스	31	48.5	C+	47.8	C+	17.0	-	-

자료: Refinitiv,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4 한국 기업 업종별 평균 ESG 사회(S) 부문 점수 및 고용 안정성 지표 (2021년 기준)

업종	대상기업수	사회(S)부문 점수	등급	인력점수	등급	직원 이직률(%)	자발적 이직률(%)	비자발적 이직률(%)
에너지	31	74.1	B+	86.3	A	5.2	4.1	1.1
소재	298	51.7	B-	72.7	B+	13.9	16.3	7.5
산업재	427	51.8	B-	62.2	B	6.0	3.2	2.5
경기소비재	412	45.3	C+	54.8	B-	10.4	4.8	4.3
필수소비재	189	34.8	C	37.7	C	8.4	6.0	2.3
금융업	192	63.0	B	70.9	B+	7.8	6.1	1.7
헬스케어	327	28.5	C-	31.9	C-	21.7	12.4	1.4
기술	657	59.9	B	70.4	B+	9.8	6.6	1.5
유틸리티	15	73.0	B+	80.5	A-	4.1	1.1	3.1

자료: Refinitiv,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Part II

**ESG
ISSUE &
INSIGHT**

GLOBAL ISSUES: 풍력발전, 글로벌 동향과 한계점

독일총리, "풍력발전기 하루 3개이상 세워야"

2023.01.14, Bloomberg

올라프 솔츠 총리는 러시아의 초기 에너지 제재를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2045년까지 기후중립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장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림10 독일총리, "풍력발전기 하루 3개이상 세워야"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DPA통신에 따르면 솔츠 총리는 1월 14일 발트해 연안 루빈에 위치한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개장식에서 "우리는 이번 겨울을 가스 부족 사태 없이 견뎌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독일에서 경제위기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독일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서 벗어난 장기적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발전량을 1/3 증가시키고 10년 안에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솔츠 총리는 인터뷰를 통해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해선 속도를 높여야 한다." 강조하며 "목표는 독일에 매일 3~4개의 대형 풍력 터빈을 설치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에너지 이슈는 솔츠 총리의 취임 후 1년간 이어졌다. 독일의 취약했던 에너지 안보는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독일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물량을 제한하면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LNG는 에너지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루빈 터미널은 독일의 두 번째 LNG 터미널이며 올해 추가 오픈이 예정되어있다.

한편 에너지 압박으로 인해 독일은 아직 남아있던 원전의 가동을 연장했지만, 솔츠는 이번 인터뷰에서 원자료가 올 봄에 "확실히"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최대 6년이 걸릴 것이라 예상되는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가속화하기 위해 많은 법이 개정되었음을 전했다.

올라프 솔츠 총리는 "우리는 19세기 말 이후 독일에서 가장 거대한 산업 현대화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며 "아무도 이 일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 Germany wants fast windmill expansion to hit climate goals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1-14/germany-wants-fast-windmill-expansion-to-hit-climate-goals>

미국 내무부, 해상 클린에너지 강화 위한 규정 발표

2023.01.12, U.S Department of Interior

미국 내무부는 12일 해양에너지관리국(BOEM)이 미국 외대륙붕(OCS)의 클린 에너지 개발 규정을 업데이트 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 전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해상 풍력 시설 개발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현대화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프로세스를 정리하며,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규정 준수 강화의 내용을 담은 계획이다. 제안된 개혁안을 통해 풍력 개발 업자들은 20년 동안 약 \$1B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무부 장관 데브 할랜드는 "미국의 청정 에너지 전환은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라고 강조하며 "해상 풍력은 우리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고, 친환경 목표를 발전시키며,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이번 규정의 업데이트로 해상 풍력 에너지 자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업자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하며 납세자들의 공정한 이득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내무부의 해양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은 규정이 처음 공포된 이후 지난 13년 동안 발전해 왔다. BOEM은 총 11건의 옥션을 진행했으며 27건의 자산 임대를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무부는 해상 풍력 에너지 자원 규정의 현대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고 변화를 통해 미국의 기후 및 재생 에너지 목표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발의된 규정은 다음과 같은 8가지 주요 요소를 포함한다:

- 기상 부표의 설치에 대한 불필요한 요구사항 제거
- 설문조사 유연성 향상
- 프로젝트 설계 및 설치 검증 프로세스 개선
- 공공재생에너지 리즈 계획 수립
- BOEM의 재생에너지 옥션 규제 개혁

- 재무 보증 요구사항 및 금융상품 맞춤화
- 안전관리체계 규정의 명확화
- 기타 조항들의 검토 및 기술적 측면의 수정

지난 2년간 내무부는 미국 최초의 상업적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2건을 승인하고, 해상풍력에 대한 접근방식을 발전시켜 국내 기반 공급망을 지향함으로써 자국의 해상풍력 산업을 촉발시켰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출범 이후, BOEM은 뉴욕 앞바다의 기록적 규모의 해상풍력 딜, 캘리포니아 해안지역 최초의 딜을 포함한 3건의 해상 풍력 임대 옥션을 개최하고, 10건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적 검토를 시작했다. 또한 멕시코 만, 오리건 주, 메인 만, 중앙 대서양과 같은 지역에서의 추가적 풍력 에너지 탐사를 위한 과정을 앞당겼다.

내무부는 2025년까지 잠재적으로 최대 4개의 해상 풍력 리즈 판매를 추가로 실시하고 최소 16개의 계획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국 청정에너지의 22기가와트 이상을 만들어내는 상업용 해상 풍력 에너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Interior Department Takes Steps to Strengthen Offshore Clean Energy Development >

<https://www.doi.gov/pressreleases/interior-department-takes-steps-strengthen-offshore-clean-energy-development>

유럽 풍력산업, 높은 에너지 수요에도 2023년 산업 약화 경고

2023.01.29, Financial Times

유럽 풍력산업은 신재생 에너지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재료비와 느린 풍력 사업 승인이 수익성의 발목을 잡으며 2023년에도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을 경고해왔다.

가장 최근의 비관적 전망은 덴마크 풍력 터빈 제조업체인 베스타스(Vestas)에서 나왔다. 베스타스는 27일 투자자들에게 EU의 느린 프로젝트 계획 시스템과 공급망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수익성이 감소함에 따라 2023년 더욱 힘든 한 해를 겪을 것이라 전했다.

지멘스 가메사(Siemens Gamesa)의 크리스틴 회장 또한 업체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고, 풍력 발전소 개발업체 오스테드(Orsted)는 "전례 없는 비용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의 주요 해상 프로젝트에 대해 \$365M 규모의 손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세계적인 풍력 터빈 공급업체 중 하나인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은 재생 에너지 부문의 수익이 터빈 주문 감소로 인해 12월까지 -20%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러-우 전쟁의 영향은 지난해 에너지 가격과 철강 등의 중요한 원자재 가격비용을 상승시켜 유럽 풍력 산업에 폭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에너지 위기의 결과로 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부와 고객의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린 EU와 영국의 승인 과정은 프로젝트상의 백로그를 만들고 새로운 터빈 주문을 지연시켰다.

그림11 유럽 풍력산업, 높은 에너지 수요에도 2023년 산업 약화 경고



자료: Financial Times,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베스타스는 2023년 전망에서 인플레이션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가격을 계속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축소된' 풍력발전 설비와 함께 매출과 수익성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사는 설치 감소의 원인으로 다시한번 "유럽의 느린 승인 프로세스로 인한" 부분을 언급하였고 "바쁜 2024년을 앞둔" 미국의 산업활동 저하 때문이라 덧붙였다. 이어 2024년, 청정 에너지 및 기후 관련 프로젝트에 \$369B를 배정한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 의해 미국 내 풍력 산업 회복이 추진될 것이라 전했다

그러나 공급망 붕괴, 인플레이션, 중국과의 경쟁 증가,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긴 관료적 과정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주요 터빈 제조업체들은 이미 2022년 비용과 인력적 측면의 감축을 결정하게 되었다.

알레산드로 보스키 유럽투자은행 재생에너지부문 대표는 "유럽의 대표적인 해상풍력 제조업체들이 "비용 측면과 가격 측면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 부문에서 '추가적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스키는 유럽 제조업체들이 "비용적 측면이 아닌 품질과 기술을 이용한 터빈의 사이즈와 성능"으로 중국 업체들과 경쟁해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이 부문에 대한 은행의 자금 대출이 상당히 증가했다"며 베스타스와 같은 대형 제조업체에 대한 연구 개발 자금 조달이 진행되었다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 위원회(Energy Transition Commission) 씩크탱크의 청정 전력 책임자는 해상풍력 섹터가 직면한 몇 가지 과제들이 "해결되는 방향"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박 병목 현상이 완화되고 연료비와 철강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멘스 가멘사는 유럽 제조업체들이 미국에서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IRA에서 풍력 부문 인센티브에 대한 적격 기준은 불확실했으며, “자국 에너지 산업에서 검증된 전문가들의 공급과 필요한 인력의 사이의 격차”가 커지는 것 또한 문제로 남아있음을 설명했다.

< Europe’s wind industry flags further weakness in 2023 despite energy demand >
<https://www.ft.com/content/74ff8ff7-8009-413a-8f2e-2a3c34695d78>

표5 풍력발전, 글로벌 동향과 그 한계점, 2023.01.11~2023.02.07

구분	뉴스 요약
<p style="text-align: center;">토픽 관련 뉴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2030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 30GW 도달 목표 공개 (2023.01.21, 로이터) <p>독일 경제부는 20일 2030년까지 30GW 발전량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 목표를 발표. 연방해운수로청의 계획을 기반으로 35년엔 40GW 도달 가능성 또한 제시. 2021년말 출범한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 풍력 발전량 목표를 10GW 증가시킨 바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어나는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 그러나 프로젝트 진행은 담보 (2023.01.22, WSJ) <p>수십억 달러의 세제 혜택과 클린에너지에 열광하는 투자자들 존재에도 미국내 프로젝트 수는 급감하고 있음. 이는 공급망 이슈, 그리드 연결까지의 긴 대기시간, 규제 문제와 미국의 정치적 환경 등의 복합적인 원인 때문. 이에 미국의 신규 풍력 발전 설치는 22년 3분기 -77.5% YoY 급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 뉴욕에 2개의 신규 해상풍력 발전 생산시설 제안 (2023.01.26, 제네랄 일렉트릭) <p>제네랄 일렉트릭은 뉴욕 허드슨강 유역에 두 개의 해상풍력 발전기 생산시설 건설을 제안. 이번 제안은 충분한 양의 주문(4.6GW 규모)가 들어왔을 경우를 조건으로 한 계획. GE는 뉴욕지역 블레이드와 나셀 생산시설 건설을 통해 지역사회 고용과 발전 효과 또한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gka 그룹, \$1.4B 규모 호주 풍력 발전지대 투자 (2023.02.02, 파워 테크놀로지) <p>이케아의 지주회사인 Ingka 그룹이 호주에 위치한 \$1.4B 규모 풍력발전지대 Golden Plains Wind Farm의 15% 지분을 매입. CEO는 호주에서의 첫 지속가능 에너지 투자를 시작으로 인도, 중국, 일본, 한국으로 프로젝트 확장 계획 또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르투갈, 투자자들 관심에 첫 해상 풍력 옥션 가속화 (2023.02.04, 로이터) <p>포르투갈의 첫 해상풍력 발전소 옥션이 북유럽 대형 유틸리티회사들의 이목을 끌고 있음. 이에 경제부 장관은 3분기 런칭을 목표로 옥션 과정에 속도를 더해야 한다 주장. 한편 발전량 계획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을 전함. 또한 정부가 현재 관심 회사들과 접촉 중이며 대상 회사들이 프로젝트의 빠른 진행을 원함을 언급</p>

자료: 언론보도,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SG INSIGHTS

넷제로 탄소 도시, 통합적 접근법



2023.01.11, World Economic Forum

전 지구에 걸쳐 도시가 차지하는 땅은 3%에 불과하지만 이 지역에서 70% 이상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현재 인구의 54%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68%로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파리기후협약의 1.5° 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반세기 안에 도시들이 넷제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WEF의 이번 리포트는 ‘시스템적 효율’이라 정의되는 통합적 에너지 접근법 넷제로 탄소 도시 목표를 바라보며 현재 당면한 환경, 경제, 건강, 그리고 사회적 문제 해결을 다룬다.

시스템적 효율성

시스템 효율성(Systemic Efficiency)는 클린 전기화, 스마트 디지털 기술, 효율적 빌딩, 그리고 인프라와 더불어 물, 쓰레기, 자원에 대한 순환 경제의 접근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다.

통합적 접근을 통한 에너지 효율의 증가

2019년 미국 내 일차 에너지원 사용의 67.5%는 낭비되었다. 이는 일차 에너지원의 열 낭비와 화석연료를 사용 장소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추가적 에너지 소비 때문이다. 에너지 분배, 교통, 냉난방, 에너지 수요조절과 같은 통합적 변화를 통한 전기화와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은 이와 같은 에너지 낭비를 줄일 것이다.

통합적 접근의 이점

효율성으로의 투자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도시인구를 위한 환경, 사회, 공중보건 측면에서의 이점 또한 제공할 것이다. 일례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명확한 자금확보와 규제 아래 넷제로 경제로의 전환은 15년간 미국 내 2천5백만개의 고용을 창출 할 것이며 대기오염 감소로 인해 약 \$14B 규모의 공중보건 이득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전환의 방법

이러한 통합 프레임워크는 초효율(Ultra-Efficient) 빌딩,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클린 전기화, 도시의 간소화 등의 방법들에 집중 할 것을 제시한다. 또한 리포트는 계획을 현실화 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의 동일한 목표를 향한 협력을 강조했다. 리포트는 각각의 통합적 접근 방법들에 대한 과제와 기회, 정책적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방법들의 글로벌한 케이스 연구도 포함했다.

< Net Zero Carbon Cities: An Integrated Approach >

<https://www.weforum.org/reports/net-zero-carbon-cities-an-integrated-approach>

12th UN 글로벌 컴팩트 – CEO 조사연구

2023.01.01, United Nation Global Compact



UN 글로벌 컴팩트와 액센츄어가 공동 작업한 CEO 조사연구는 18개의 산업, 128개 국가에 속해있는 2,600명 이상의 CEO들에게 130개 이상의 깊이 있는 인터뷰 진행, 이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리포트이다. 이번 조사는 특히 팬데믹, 전쟁,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감과 기후변화를 대면하고 대비하는 CEO들의 생각과 자세를 볼 수 있었다.

2021년과 달라진 점

1년전 리포트에서 CEO들이 지속가능성과 기후 목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지속가능성 목표는 현재 CEO들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들은 사업의 투자 범위를 재검토하고 혁신모델을 개발하며 기술 주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경쟁사, 그리고 정부와의 파트너십의 증가를 통해 규모적 측면의 이점을 이용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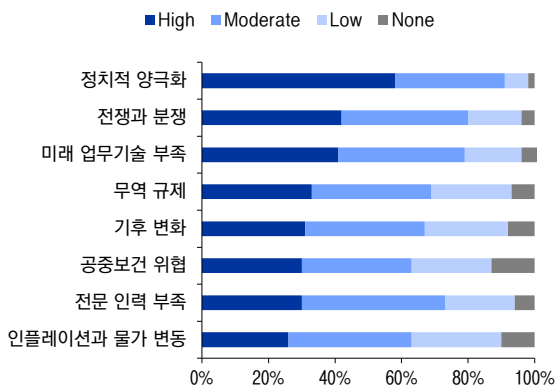
UN의 2030 SDGs 과정의 절반을 바라보는 시점

유엔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발표한 이후 1.5° C 목표를 위한 움직임들이 포착되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UNFCCC 리포트는 2100년까지 2.5° C의 기온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세계적 재앙을 경고했다. 전세계 CEO의 87%는 현재의 지정학적 불안이 SDGs를 달성하는데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응답했으며 이에 따른 공급망 문제와 가격불안정, 그리고 자원 부족의 영향을 언급했다.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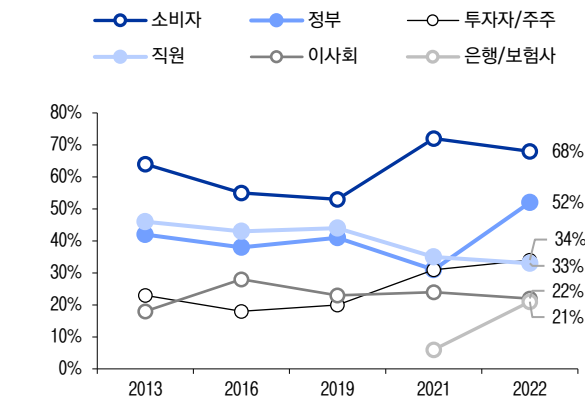
93%의 CEO들은 자신들이 10개 이상의 글로벌 문제와 직면하고 있다 답하였으며, 46%의 CEO는 제시된 17개의 문제 모두 해결해야 할 대상이라 응답했다. Ecolab의 회장은 현재의 국면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 다른 이슈들이 중첩되며 수많은 방해양상이 복합적으로 엮인 상황이라 설명했다. 더해 전통적 경영 문제가 아닌 공중보건과 기후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떠오르며 CEO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조사결과 또한 보여졌다.

그림12 CEO 들이 마주하는 글로벌 위협의 정도 Top 8



자료: UN,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지속가능 전환에 큰 영향이 있는 그룹(CEO 응답)



자료: UN,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떠오르는 정부의 중요성

향후 5년간의 지속가능 전환에서 CEO들은 여전히 소비자(68%)의 역할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이해관계자 중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2021년 31%→2022년 52%). 정부가 녹색 정책을 시행하고 재활용, 인프라 프로젝트, 지속가능 공시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입장에서 전환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CEO들의 의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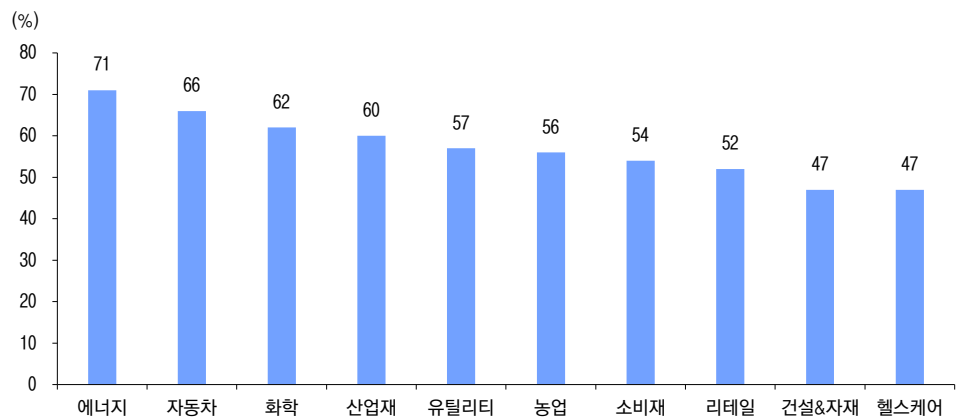
산업별 반응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으로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낀 섹터는 산업 내 CEO의 71%가 전환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 에너지섹터였다. 이 분야의 CEO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부담을 느끼며 화석연료 의존을 분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다.

전세계 CEO들이 꼽은 현재 기업이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 Top3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이슈, 그리고 인력문제였다. 한편 회복 탄력성에 대해 3분의 2의 CEO는 전략적 장기 파트너십을 해결책으로 고려하고 있다 밝혔으며 직원 교육 강화, 디지털적 솔루션, 공급망 데이터 강화 등의 방법들을 언급했다.

UN 글로벌 컴팩트가 발간한 이번 12번째 CEO 조사연구에는 다양한 리스크가 공존하는 현 세계 상황에 대한 CEO들의 의견이 데이터화 되어 있고 각 섹터 별 세분화된 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14 산업별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 도입 CEO 비율 Top10



자료: UN,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The 12th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 Accenture CEO Study >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6103>

월간 Global ESG News

표6 월간 ESG 뉴스 2023.01.11~2023.02.07

구분	시장 동향
De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빌 게이츠 투자의 호주 스타트업, 소의 메탄 발생 감축 목표 (2023.01.24, BBC) 호주의 기후 기술 스타트업 Rumin8은 적색미역을 이용해 소의 메탄 발생을 감축시키는 방안을 개발 중. Rumin8은 빌 게이츠, 베프 제로스 등의 빅테크 CEO들이 투자한 기후 VC에서 2015년 \$12M 규모의 펀딩을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M, 리튬 광산업체 리튬아메리카에 \$650M 투자 (2023.01.31, CNBC) GM이 '리튬 아메리카'에 \$650M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며 배터리 원자재 투자에 가장 큰 금액을 투입한 자동차 회사 등극. 이에 GM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투자임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스타트업 리차지, 파산한 브리티시 볼트 인수 유력 (2023.02.06, 더 가디언) 미국 투자은행의 지원을 받는 호주 리차지(Recharge)가 전기차 배터리용 기가팩토리 건설을 목표로 했지만 결국 파산한 브리티시 볼트의 유력 인수자로 선정. 리차지는 브리티시 볼트의 기가팩토리 건설계획을 이어갈 예정
Gover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라엘, 플라스틱세 축소 발표 (2023.01.29, 로이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극우 정부가 그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에 크게 기여해온 플라스틱세를 축소하겠다 발표. 대변인은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 전하며 플라스틱 관련 물품의 가격인하를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유럽 넷제로 산업 발전 위한 그린 딜 산업 계획 발표 (2023.02.01, EU) EU 위원회는 지난 31일 유럽의 넷제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 중립의 빠른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그린딜 산업 정책 (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 규정 단순화, 투자 가속화, 그린 기술 발전 등의 목표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든, 현재의 '자사주 매입 1% 세금' 규정 4배 증가 법안 촉구 (2023.02.06, WSJ) 바이든은 IRA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시작된 자사주 매입 1% 세금규정을 4배 증가시키는 계획을 제안. 이는 주주이익보다 기업의 성장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백악관의 입장을 보여줌
Corpo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SA, 연료 효율 프로젝트 일환으로 보잉에 \$425M 지급 (2023.01.19, 로이터) 나사가 지속가능 비행 시범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잉에 \$425M 지급하며 기술적 협력관계 구축. 이번 프로젝트의 주안점은 바이든 정부 항공기후조치계획의 목표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쉐브론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바이든 정부 우려 (2023.01.27, 블룸버그) 미국 에너지 기업 쉐브론이 시총(약 \$346B)의 22%에 달하는 \$75B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 이에 백악관은 소수의 투자자만 혜택을 받는 과도한 주주환원보다 생산성과 수익성에 대한 투자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슬라, 곧 멕시코 태양광 투자 발표할 것 (2023.02.03, 블룸버그) 멕시코 외무부 장관은 멕시코는 현재 재생 가능 에너지 인프라 확장에 노력하고 있으며 테슬라가 곧 관련 사업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라 발언. 그러나 아직 정확한 시일에 대한 언급은 피함
Fu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자산운용협회, EU의 '그린워싱' 의미 규정에 경고 (2023.01.16, 로이터) 미국 자산운용협회(ICI)가 그린워싱의 뜻을 법적으로 규정지으려는 EU의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 일반적 정의와 입법은 생산성을 저해하며 지속가능 관련 문장들은 상품과 서비스 레벨에서 호도될 수 있음을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xtEnergy 캐피탈, \$1.5B규모 태양광 펀드 런칭 (2023.01.17, PV Tech) 재생가능 투자자산운용회사 NextEnergy 캐피탈이 태양광 밸류체인 투자 목적의 NextPower V ESG 펀드를 런칭. 펀드는 \$1.5B 규모의 태양광 투자와 에너지 규모 3.5GW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르웨이 국부펀드, 임원진에 기후위기 대처 소홀 시 해고 경고 (2023.02.03, 더 가디언) 세계 최대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회사의 고위 임원진들에게 기후위기, 인권, 그리고 이사회외의 다양성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시 연임시키지 않을 것이라 경고

자료: 언론보도,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Part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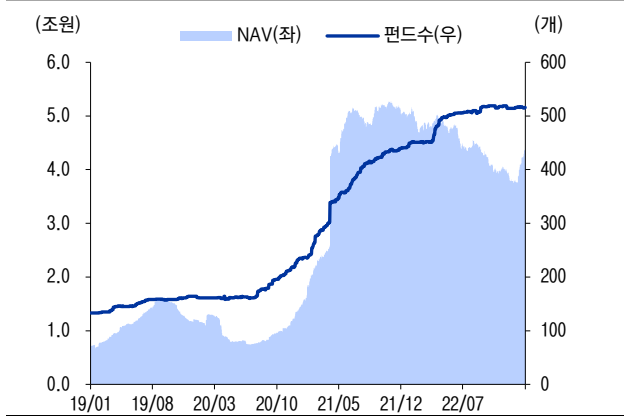
ESG

DATA MONITOR

국내 ESG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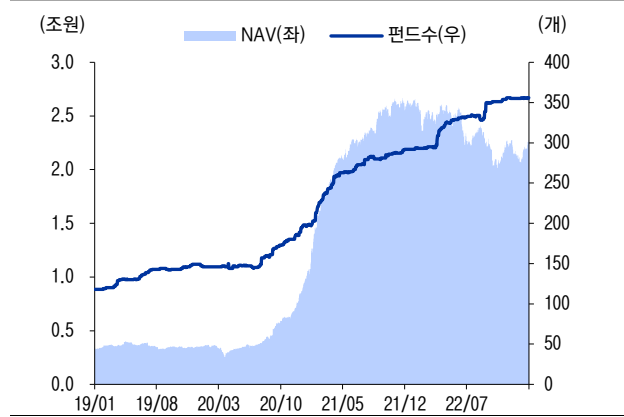
국내 ESG 펀드

그림15 SRI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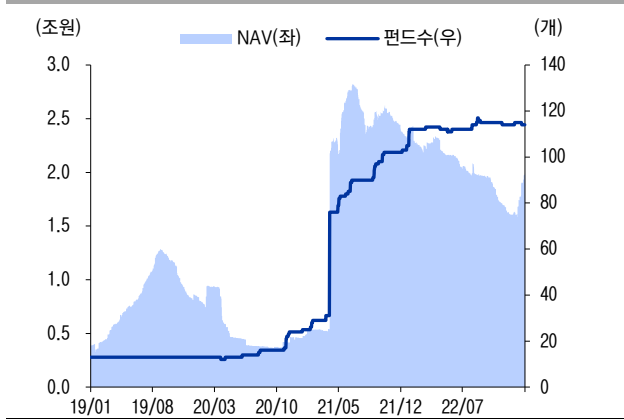
자료: DataGuide,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ESG(주식)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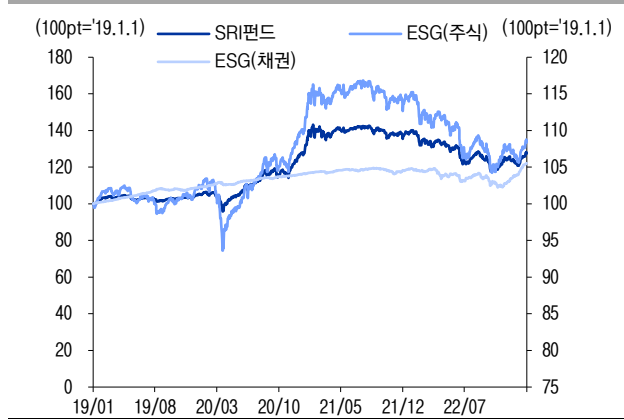
자료: DataGuide,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ESG(채권) 펀드



자료: DataGuide,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국내 ESG 펀드 수익지수



자료: DataGuide,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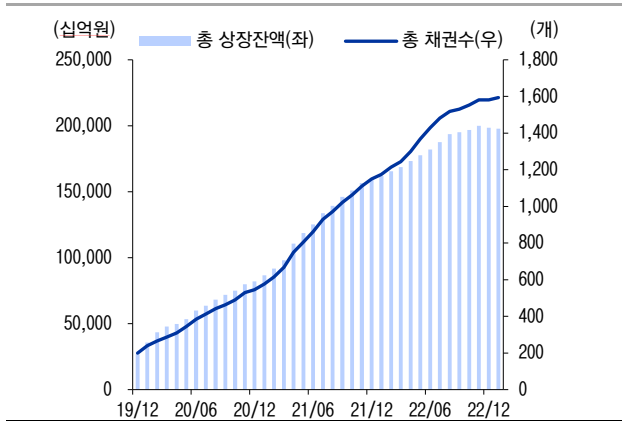
표7 국내 ESG 펀드 현황 (1월 말 기준)

구분	펀드수 (판매기준)	펀드수 (운용기준)	설정액 (억원)	NAV (억원)	수익률(%)						
					1M	3M	6M	YTD	1Y	2Y	3Y
SRI 펀드	516	91	36,963	43,635	5.26	5.80	0.93	5.26	-4.29	-6.37	21.45
ESG(주식)	356	53	15,980	22,470	8.47	8.56	0.35	8.47	-8.70	-13.24	23.39
ESG(채권)	114	20	19,553	19,863	1.51	2.89	1.54	1.51	0.98	1.17	3.00

자료: DataGuide,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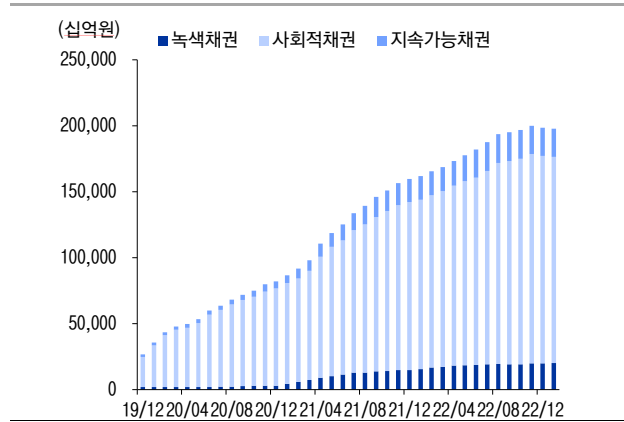
국내 SRI 채권

그림19 국내 SRI 채권 상장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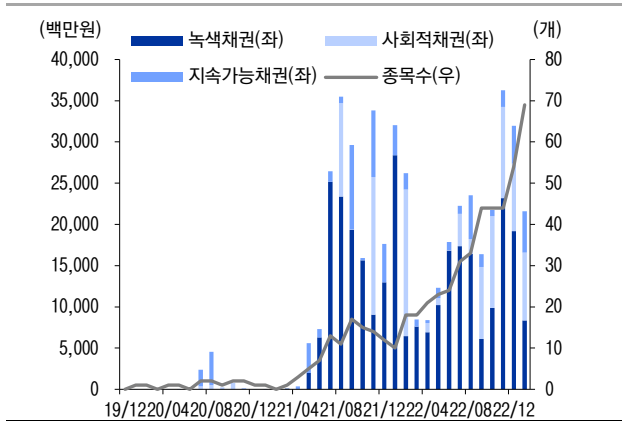
자료: KRX,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국내 SRI 채권 종류별 상장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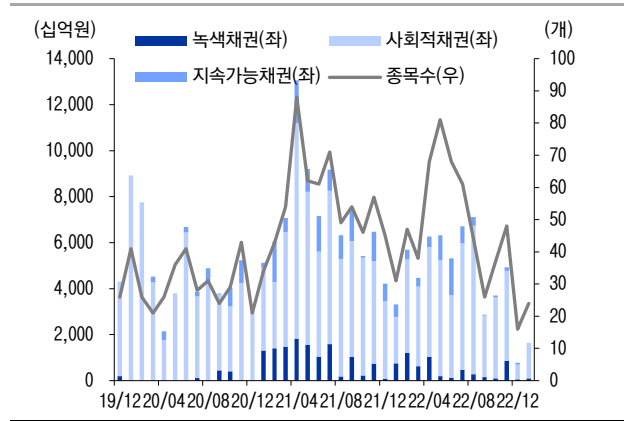
자료: KRX,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국내 SRI 채권 월별 거래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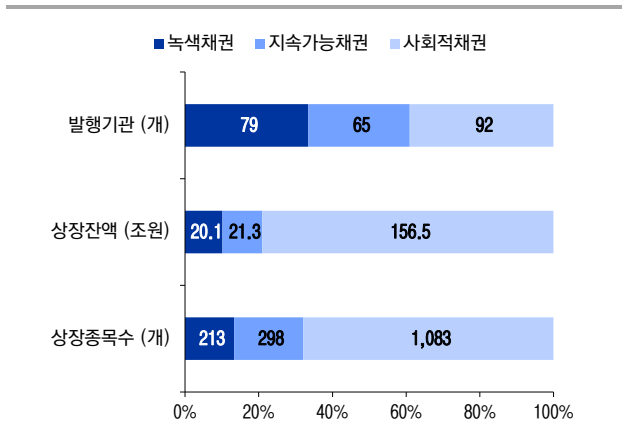
자료: KRX,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국내 SRI 채권 월별 신규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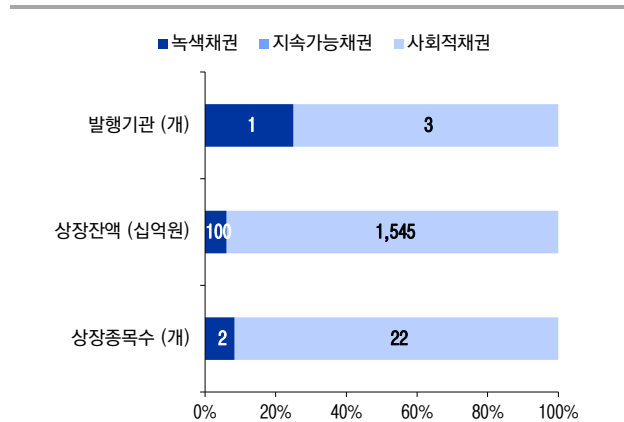
자료: KRX,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3 국내 SRI 채권 종류별 상장잔액 현황 (1월말 기준)



자료: KRX,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4 1월 국내 SRI 채권 신규상장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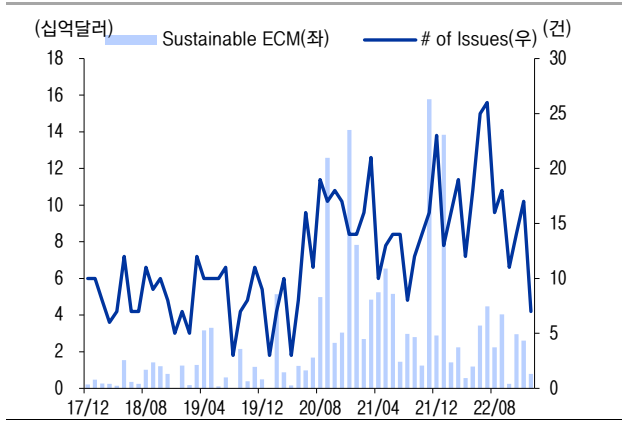


자료: KRX,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ESG 투자 동향

Sustainable Equity Capital Markets

그림25 Global Sustainable ECM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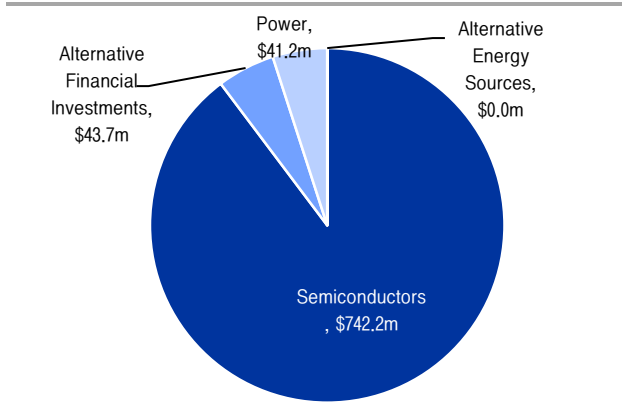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6 Top 10 Book runner (YTD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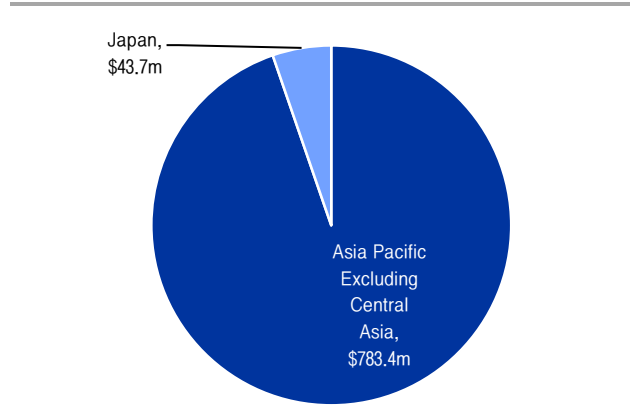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7 산업별 비중(YTD 기준)



자료: Refinitiv,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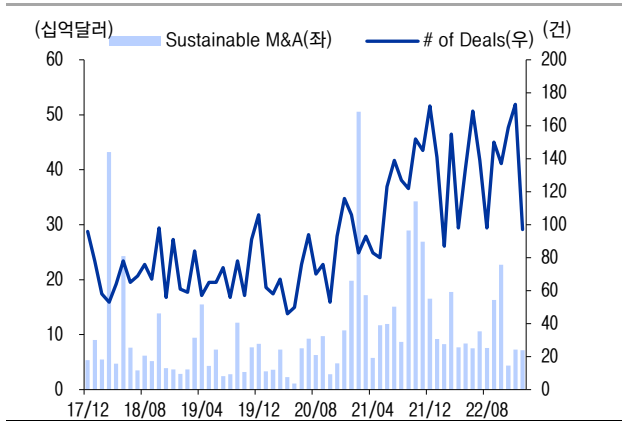
그림28 권역별 비중(YTD 기준)



자료: Refinitiv,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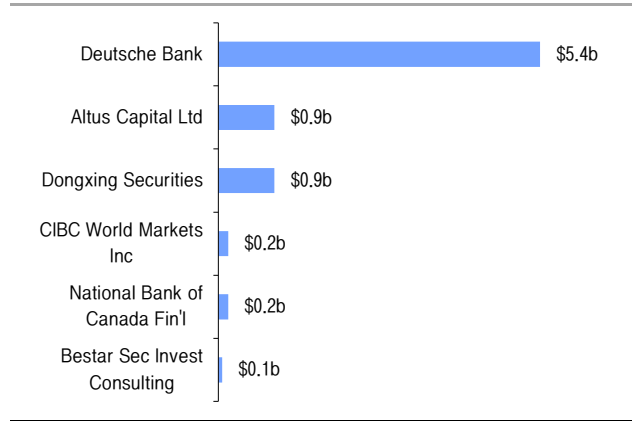
Sustainable Mergers & Acquisitions

그림29 Global Sustainable M&A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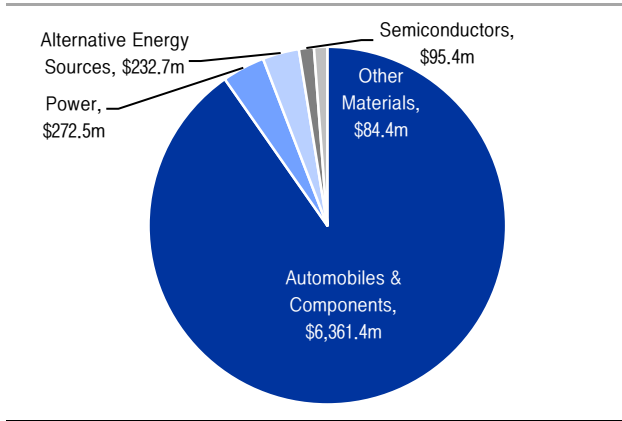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0 Top Financial Advisors (YTD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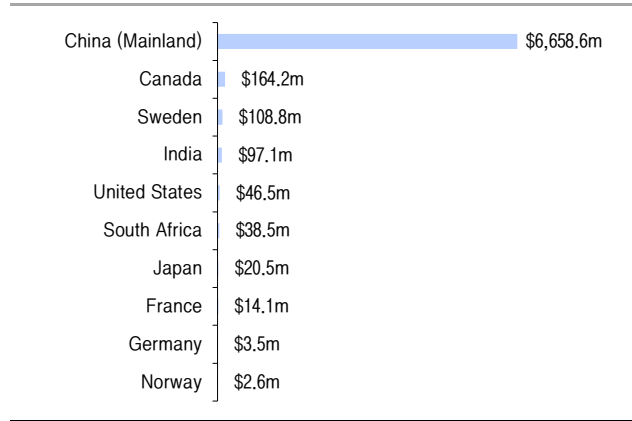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1 산업별 비중(Target, YTD 기준)



자료: Refinitiv,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2 주요 Target 국가(YTD 기준)



자료: Refinitiv,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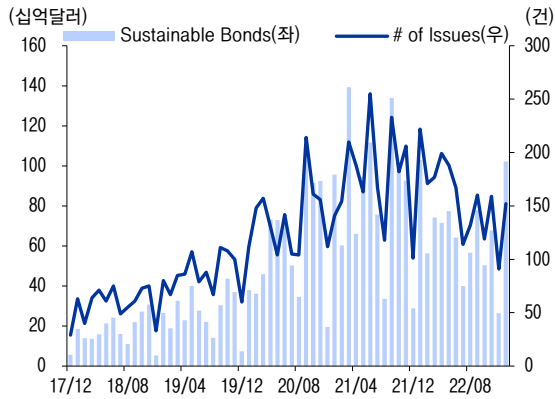
표8 Top 10 Sustainable M&A Deals(1 월간)

피인수 기업명	Value (\$M)	피인수기업 국가	피인수기업 섹터	등록일	인수자명
Lotus Tech Inc	5400	중국	운송 장비	2023-01-31	Rice Acquisition Corp II
Wm Motor Global Invest Ltd	940.96	중국	운송 장비	2023-01-12	Investor Group
Fengate-Solar Portfolio assets	164.2	캐나다	전기, 가스, 수도	2023-01-23	Innergex Renewable Energy
Marguerite Adviser Sa-Wind	108.8	스웨덴	전기, 가스, 수도	2023-01-24	Aneo Vind AS
Guangdong Guoli Sci & Tech Co	84.35	중국	고무, 플라스틱	2023-01-18	Quanwei Lvneng Investment
Spic Guangxi Jinzishan Wind	79.25	중국	전기, 가스, 수도	2023-01-03	Guangxi Nanning Lvdong Ltd
Haimo Technologies Group Corp	64.78	중국	기계	2023-01-04	Shandong Xinzhengcheng
Sukhbir Agro Energy Ltd	61.52	인도	전기, 가스, 수도	2023-01-15	Climate Investment Funds
Zhechu Energy Group Co Ltd	46.46	중국	전자, 전기	2023-01-05	Zhongbei Communication
Grinding & Dicing Services Inc	40	미국	전자, 전기	2022-12-20	Akoustis Technologies Inc

자료: Refinitiv,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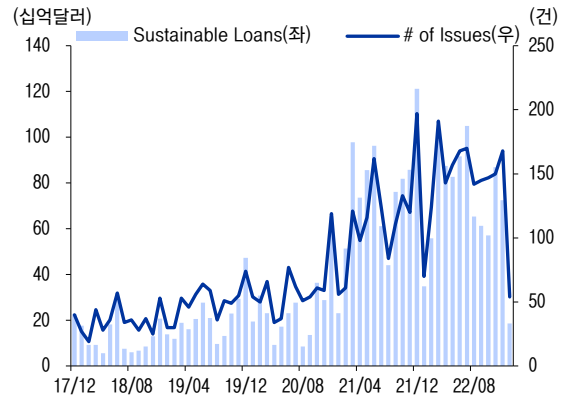
Sustainable Bonds & Loans

그림33 Global Sustainable Bond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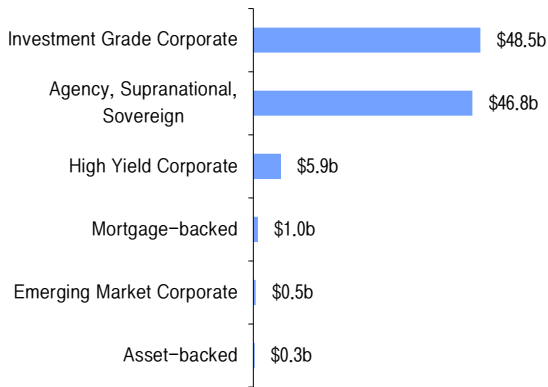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4 Global Sustainable Loan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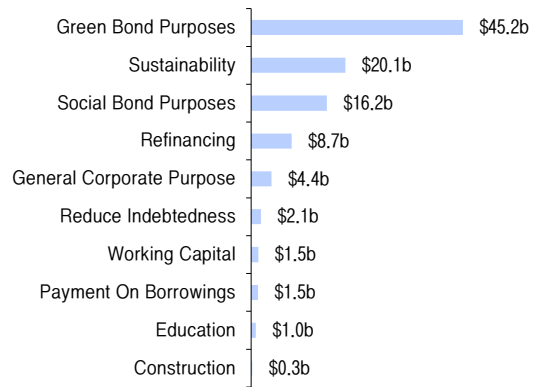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5 발행주체별 발행 규모(YTD 기준)



자료: Refinitiv,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6 주 사용목적별 발행 규모(YTD 기준)



자료: Refinitiv,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SG Indices

표9 국내외 ESG 지수 (1월 말 기준)

지수명	종가지수	수익률 (%)					
		1M	3M	6M	YTD	1Y	3Y
코스피 200 ESG 지수	344.69	9.44	5.52	-2.56	9.44	-11.81	14.17
코스피 200 기후변화지수	1,491.21	9.61	4.94	0.44	9.61	-8.67	16.79
코스닥 150 거버넌스 지수	1,257.97	2.34	0.58	-5.91	2.34	-9.63	19.14
KRX Eco 리더 100	1,861.21	6.43	5.91	-1.84	6.43	-4.29	19.91
KRX ESG 리더 150	1,543.22	6.00	6.79	-1.72	6.00	-4.59	25.10
KRX 거버넌스 리더 100	1,808.66	6.45	8.39	-2.49	6.45	-6.26	22.98
KRX 사회책임경영	1,705.42	7.63	5.04	-3.75	7.63	-13.75	15.42
KRX 300 기후변화지수	1,431.46	9.09	4.72	-0.97	9.09	-9.61	15.24
KRX 기후변화 솔루션 지수	1,798.32	11.30	1.70	2.43	11.30	4.83	57.96
KRX/S&P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	1,309.8	8.84	5.30	-2.62	8.84	-12.46	14.33
KRX/S&P ESG 고배당 지수	1,234.5	7.25	7.20	1.88	7.25	1.63	21.70
MSCI World ESG Leaders Select 5% Issuer Cap	3,004.9	7.46	11.27	2.30	7.46	-8.02	
Kld 400 Social Gross Return in USD Currency Index	2,733.6	7.11	7.64	-0.65	7.11	-10.17	33.43
MSCI USA Extended ESG Select Gross USD RT Index	2,341.9	6.45	6.67	0.14	6.45	-9.71	36.81
MSCI World SRI 5% Issuer Capped Net Index USD Realtime	2,513.0	8.09	11.14	1.95	8.09	-8.22	26.66
MSCI USA SRI 5% ISSUER CAPPED Net Return USD Index	3,734.7	7.76	7.53	1.27	7.76	-6.94	41.56
MSCI EMU SRI 5% Capped Net Index EUR End of Day	2,505.4	9.45	16.00	8.40	9.45	-1.16	18.14
World Water Market Cap Adjusted Index (EUR - Net Total Return)	8,762.7	7.48	4.37	-1.66	7.48	-4.08	
Low Carbon 100 Europe PAB NR	224.1	6.69	10.70	3.04	6.69	-0.60	17.22
MSCI Emerging Markets SRI 5% Capped Net Index USD End of Day	1,318.7	7.00	20.32	1.99	7.00	-9.97	7.54
MSCI World SRI Gross Index USD End of Day	3,588.0	7.70	10.68	0.48	7.70	-9.29	28.90
MSCI International Emerging Markets Socially Responsible indexex Gross Rtrn RT USD Index	1,699.2	9.21	25.23	2.37	9.21	-13.14	17.20
Dow Jones Sustainability World Index NTR	3,347.6	5.70	11.17	3.57	5.70	-6.90	23.58
iSTOXX Global ESG Select 50 Price USD Index	208.4	9.41	19.32	8.41	9.41	-7.94	13.13
MSCI ACWI CLIMATE CHANGE NET TOTAL RETURN USD	2,015.4	8.22	10.56	-0.35	8.22	-10.90	21.30
MSCI ACWI LOW CARBON LEADERS Price USD Index Real Time	2,143.2	7.10	10.33	1.72	7.10	-9.48	16.39
Solactive Equileap Global Gender Equality PR Index	227.9	8.50	14.60	6.16	8.50	-6.75	

자료: DataGuide, Refinitiv,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SG와 벤치마크 ETFs

표10 국내외 ESG 지수 (1월 말 기준)

ETF명	총가지수	수익률 (%)					
		1M	3M	6M	YTD	1Y	3Y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90.2	6.48	5.24	-1.81	6.48	-11.01	25.72
iShares ESG Aware MSCI EAFEETF	71.8	9.14	20.79	8.37	9.14	-6.14	7.30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20.7	4.48	9.79	-6.95	4.48	10.61	71.12
iShares MSCI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TF	83.0	5.17	14.99	-0.02	5.17	-4.12	25.07
WisdomTree Recycling Decarbonisation UCITS ETF	22.1	4.62	-0.76	-4.00	4.62		
Energy Select Sector SPDR Fund	89.9	2.81	-0.08	14.68	2.81	36.42	68.28
iShares MSCI Wld Energy Sector ESG UCIT ETF	5.4	3.21	3.81	11.08	3.21		
Invesco Solar ETF	80.8	10.78	13.36	-5.57	10.78	23.40	151.32
First Trust Global Wind Energy ETF	18.1	4.33	15.76	-2.17	4.33	-3.78	21.77
Materials Select Sector SPDR Fund	84.7	8.97	14.27	8.35	8.97	0.24	46.89
iShares MSCI World Materials Sector ESG UCITS ETF	4.4	7.61	17.04	6.40	7.61		
Global X Lithium & Battery Tech ETF	70.7	20.66	5.84	-4.93	20.66	-9.65	146.24
Utilities Select Sector SPDR Fund	69.1	-2.00	3.46	-6.57	-2.00	-0.23	0.16
First Trust Global Wind Energy ETF	17.3	-0.52	14.52	0.58	-14.43	-14.43	18.26
Materials Select Sector SPDR Fund	77.7	-6.13	14.22	5.54	-14.27	-14.27	26.47
iShares MSCI World Materials Sector ESG UCITS ETF	4.1	-1.70	13.20	3.08			
Global X Lithium & Battery Tech ETF	58.6	-15.61	-11.32	-19.29	-30.59	-30.59	114.37
Utilities Select Sector SPDR Fund	70.5	-1.30	7.62	0.53	-1.51	-1.51	9.10
Vanguard Real Estate	91.1	10.40	9.74	-7.98	10.40	-14.29	-3.06
Invesco Real Assets ESG ETF	14.5	8.57	10.50	-1.58	8.57	-1.22	
Financial Select Sector SPDR Fund	36.6	6.90	7.59	8.45	6.90	-6.40	22.03
iShares MSCI World Financials Sector ESG UCITS ETF	4.8	7.85	15.33	11.60	7.85	-5.63	
Comm Services Select Sector SPDR	55.1	14.77	14.25	-2.29	14.77	-25.52	2.17
iShares MSCI World Communication Services Sector ESG UCITS ETF	3.9	9.84	8.13	-5.61	9.84		
Industrial Select Sector SPDR Fund	101.9	3.71	7.95	6.49	3.71	1.10	25.57
iShares MSCI World Industrials Sector ESG UCITS ETF	4.9	6.00	12.44	6.63	6.00		
Vanguard Information Technology	350.4	9.70	6.11	-5.35	9.70	-17.02	37.85
iShares MSCI World Information Technology Sector ESG UCITS ETF	7.6	11.10	9.60	-3.04	11.10	-18.32	30.85
Cons. Disc. Select Sector SPDR	148.7	15.13	3.24	-8.68	15.13	-19.60	18.66
Amundi S&P Global Cons Dscrtnr ESG ETF	9.4	11.90	-0.17		11.90		
Consumer Staples Select Sector SPDR Fund	73.7	-1.09	1.37	-1.01	-1.09	-2.94	16.71
Amundi S&P Global Cons Staples ESG ETF	9.9	-1.48	-2.14		-1.48		
B.A.D ETF	13.3	6.62	6.17	5.93	6.62	-4.56	
SPDR S&P Oil & Gas Exploration & Production ETF	141.0	3.75	-6.82	2.88	3.75	32.24	83.94
iShares U.S. Aerospace & Defense ETF	114.7	2.51	6.96	10.47	2.51	13.39	0.72

자료: Refinitiv,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윤정).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